

##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조사\*

이춘수\*\* · 강창수\*\*\* · 양성범\*\*\*\*

### A Survey on the Farmers and Agricultural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Farming Succession

Lee, Choon-Soo · Kang, Chang-Soo · Yang, Sung-Bum

Recently farming succession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agriculture in order to secure agricultural manpower in response to the aging of farming households and declining popul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farmers and agricultural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farming succession in Korea, especially of farming succession to a third party. Farmers and agricultural college students are potential farming transferors and successors, respectively. We surveyed 146 farmers and 95 students who graduated or were studying at the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 questions of the survey are large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1) the will and scope of farming transfer and succession, 2) the requirements for the successors of farming, 3) the perception on the succession to third-parties, and 4) the farming succession polic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41.4% of farmers and 46.3% of potential farming successors have willingness to accept a farming succession to a third party. When farming success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Farming Succession Exchange, 46.8% of farmers and 54.7% of successors said they are willing to carry out third-party farming succession. This means that a third-party farming succession could be activated if the reliability issue that may arise during the farming succession is resolved through the Farming Succession Exchange. Other implications for farming succession are suggested at the end of this study.

Key words : *farming succession, farming transfer, farming succession to a third party, farming succession exchange*

---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 PJ013789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 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가공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부교수(passion@dankook.ac.kr)

## I. 서 론

농가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는 한국농업 발전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가 인구는 1970년 1,442만 명에서 2016년 249만 명으로 감소하고, 60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15.2% (1970)에서 71.1% (2016)로 증가하였다. 농가 고령화는 경제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여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젊은 신규인력 진입이 미미하여 농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도 우려된다.

다행히 농업계 대학 졸업생, 귀농인 등 다양한 후계농업인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 대의 누적 영농 종사자는 2003년 132명에서 2016년 3,251명으로 증가하였고, 귀농 가구도 2013년 10,200가구에서 2015년 11,959가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승계 받아 정착하는 방안이 부재하다. 그러므로 젊은 신규인력이 농업·농촌에 유입되어 안정적인 농업경영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의 인력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영농이양 주체인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 귀농인 등 잠재적 승계자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조사가 중요하다.

영농승계 활성화 측면에서 이양자가 가족 이외 승계자에게 경영 일체를 넘겨주는 과정 또는 승계자가 가족 이외 이양자의 경영 일체를 이어 나가는 과정을 뜻하는 제3자 영농승계 활성화가 중요하다. 제3자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 및 잠재적 승계자의 이에 대한 인식과 장애 요인 조사, 그리고 대안 분석이 필요하다.

농가와 귀농인, 농업계 대학생 등 승계자의 영농승계 및 관련 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거나 고령농의 영농은퇴나 취농 현황 등을 조사한 연구는 다수 있다(Lee and Kim, 1995; Kim and Ma, 2006; Kang, 2008; Yoon and Gim, 2008; Ryu and Ahn, 2017; Choi et al., 2017). 그러나 영농승계에 대한 농가와 잠재적 승계자의 인식을 비교하고, 제3자 영농승계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농가와 잠재적 승계자인 농업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영농이양 또는 승계 의향과 범위, 이양자와 승계자가 바라보는 영농승계자의 조건과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 영농승계 시 요구조건(지속 교류, 이양자 경영참여 및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부양 등)에 대한 인식, 제3자 영농승계 의향과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에 대한 인식 등이다. 본 연구는 영농승계 당사자들이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Ⅱ. 용어 및 조사방법

### 1. 용어 정의

본 연구는 영농승계(farming succession)를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통해 농업자산, 인적자본, 경영 노하우 등 농업경영 일체를 타인에게 이양하고, 이양된 경영 일체를 이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영농승계의 주체는 이양자(transferor)와 승계자(successor)로 구분된다. 이양자는 영농승계를 통해 농업경영 일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 승계자는 영농승계를 통해 농업경영 일체를 이어 나가는 사람이다. 본 연구는 농가를 잠재적 이양자, 농업계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잠재적 승계자로 설정하여 이들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후에는 농가를 (잠재적) 이양자, 농업계 대학생을 (잠재적) 승계자로 지칭하였다.

영농승계 관련 용어로 후계영농경영인이 있는데,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정책사업 대상자로 정부에서 정한 4개 기준(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병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sup>1)</sup> 후계영농경영인과 유사한 청년 창업형 후계농은 연령 상한 만 40세, 독립 영농경력 상한을 3년 미만으로 규정되고, 4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자 영농승계(farming succession to a third party)는 영농이양자가 가족 이외 승계자에게 경영 일체를 넘겨주는 과정 또는 영농승계자가 가족 이외 이양자의 경영 일체를 이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최근 가족의 범위가 좁아지고, 혈연이나 인연(배우자) 이외에 입양으로 가족이 구성되기도 하며, 이양자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자 영농승계를 정의하는 경우의 가족을 ‘이양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는 자녀,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농가는 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 및 아산시농민회 등의 생산자단체의 협조로 총 146명을 조사하였다.<sup>2)</sup> 농업계 대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협조로 120명을

1) 연령의 경우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그리고 교육실적은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 미필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병무청 인원배정을 받은 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하다.

2) 농가조사는 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 및 아산시농민회에서 주최한 농민단체 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에 표본농가가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의 생산자단체 활동 농가로 한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rmers to survey

	Frequency (persons)	Ratio (%)		Frequency (persons)	Ratio (%)
Gender			Residential neighborhood		
Male	92	69.7	Seoul	2	1.6
Female	40	30.3	Gyeonggi	18	14.5
Total	132	100.0	Chungbuk	1	0.8
Graduate agricultural high school or not			Chungnam	38	30.6
Yes	19	16.5	Daejeon	1	0.8
No	96	83.5	Jeonbuk	52	41.9
Total	115	100.0	Jeonnam	6	4.8
Graduate agricultural college or not			Gyeongbuk	1	0.8
Yes	31	27.4	Gyeongnam	3	2.4
No	82	72.6	Pusan	2	1.6
Total	113	100.0	Total	124	100.0
Living with spouse or not			Yearly agricultural income		
Yes	111	86.0	under 20 million won	72	57.1
No	18	14.0	20~40 million won	21	16.7
Total	129	100.0	40~60 million won	15	11.9
Having a side job or not			60~80 million won	4	3.2
Yes	55	46.2	80~100 million won	4	3.2
No	64	53.8	100~120 million won	1	0.8
Total	119	100.0	120~140 million won	0	0.0
Return to farming or not			140~160 million won	0	0.0
Yes	49	41.5	160~180 million won	1	0.8
No	69	58.5	180~200 million won	1	0.8
Total	118	100.0	above 200 million won	7	5.6
With children or not			Total	126	100.0
With children	57	46.3			
Living separately	60	48.8			
No child	6	4.9			
Total	123	100.0			

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어 조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전국 단위의 표본농가로 확대한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겨둔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college students to survey

	Frequency (persons)	Ratio (%)		Frequency (persons)	Ratio (%)
Gender			Residential neighborhood		
Male	66	69.5	Gyeonggi	13	13.8
Female	29	30.5	Incheon	1	1.1
Total	95	100.0	Gangwon	2	2.1
Graduate agricultural high school or not			Chungbuk	7	7.4
Yes	32	33.7	Chungnam	10	10.6
No	63	66.3	Jeonbuk	27	28.7
Total	95	100.0	Jeonnam	16	17.0
Graduate agricultural college or not			Gwangju	1	1.1
Yes	7	7.4	Gyeongbuk	9	9.6
No	88	92.6	Daegu	1	1.1
Total	95	100.0	Gyeongnam	5	5.3
Living with spouse or not			Jeju	2	2.1
Yes	64	67.4	Total	94	100.0
No	31	32.6	Yearly household income		
Total	95	100.0	under 20 million won	9	9.5
With children or not			20~40 million won	12	12.6
Yes	6	6.3	40~60 million won	13	13.7
No	89	93.7	60~80 million won	14	14.7
Total	95	100.0	80~100 million won	12	12.6
Family work in agriculture or not			100~120 million won	4	4.2
Yes	80	84.2	120~140 million won	2	2.1
No	15	15.8	140~160 million won	2	2.1
Total	95	100.0	160~180 million won	1	1.1
Job			180~200 million won	2	2.1
Student	85	95.5	Above 200 million won	24	25.3
Salaried worker	1	1.1	Total	95	100.0
No job	2	2.2			
Others	1	1.1			
Total	89	100.0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5명을 제외한 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이고,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영농이양 또는 승계의향, 영농 이양자 또는 승계자 필요조건,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 대한 요구조건, 제3자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첫째, 영농이양 또는 승계의향과 관련하여 승계 또는 이양 의향과 의향이 없거나 정하지 못한 이유, 승계대상별(토지, 토지 이외 농업자산, 영농기술,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승계 또는 이양의향을 조사하고, 둘째, 이양자 또는 승계자 조건 측면에서는 중요 조건, 승계자의 최소 영농경력, 승계 우선순위, 적정 승계 시점, 승계 필요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 대한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요구조건의 중요도 또는 타당성, 이양자 마을 거주 의향과 적정 거주 기간, 적정 인턴 기간 및 임금수준, 토지 매입자금 상환 기간, 이양자 최소 소득 보장이나 부양을 조건으로 토지를 상속하거나 받을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한 145개 분석대상 농가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58.3세(표준편차 9.0세, 최대 83세, 최소 27세)이고, 영농경력은 평균 19.7년(표준편차 17.1년, 최대 70년, 최소 0년)이다.

농업계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95명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평균 연령은 23.9세(표준편차 4.2세, 최대 46세, 최소 20세)이고, 농업 이외의 직업경력은 평균 1.52년(표준편차 2.4년, 최대 12년, 최소 0년)이다.

### Ⅲ. 분석결과

#### 1. 영농이양 및 승계 의향

영농이양 의향 조사결과 승계자의 77.9%가 승계의향이 있으나, 영농이양을 하고자 하는 이양자는 전체의 39.6%에 불과하였다(Table 3). 영농이양 의향이 없거나 미정이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이양자의 경우 마땅한 승계자가 없기 때문(34.4%)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다음이 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고, 수익보장이 어려워져(28.0%), 내 삶의 일부로서 삶의 양식이기 때문(11.8%), 다른 직업에 비해 고되기 때문(10.8%) 등의 순이다(Table 4). 승계자 중 승계의향이 없거나 미정인 응답자의 경우 승계 시 이양자가 제시할 요구조건 부담(27.3%)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고, 다음이 마땅한 이양자 부재(18.2%), 이양자의 경영 간섭 여지(9.1%) 등이다(Table 5).

영농승계 시 승계대상이 되는 요소는 토지나 기계, 건물 등의 농업자산 이외에 영농기술,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하다.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에게 요소별 이양 또는 승

계의향을 질문한 결과 토지나 영농자산의 이양 또는 승계의향보다 영농기술,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이양하거나 승계코자 하는 의향이 크게 나타났다.

Table 3. Farming succession intention

(unit : person, %)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Yes	57	39.6	74	77.9
No	32	22.2	6	6.3
Not sure	55	38.2	15	15.8
Total	144	100.0	95	100.0

Table 4. Transferors' response on the reasons why not to succeed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unit : person, %)

Reasons	Frequency	Ratio
Farming is a form of life as part of my life.	8	9.3
To relieve the boredom.	5	5.8
To save for my retirement nest egg.	4	4.7
The future of agriculture is not bright, so the revenue is not stable.	26	30.2
Farming is harder than other professions.	10	11.6
There is no suitable successor.	30	34.9
Others	3	3.5
Total	86	100.0

Table 5. Successors' response on the reasons why not to succeed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unit : person, %)

Reasons	Frequency	Ratio
There is no suitable transferor.	2	18.2
Transferor can interfere in management.	1	9.1
The conditions transferor demands are burdensome.	3	27.3
Others	5	45.5
Total	11	100.0

Table 6. Intention of transfer and succession by elements

(unit : person, %)

		Transferor				Successor			
		Yes	No	Not sure	Total	Yes	No	Not sure	Total
Sale of land which transferor owns	Frequency	80	23	8	111	51	15	28	94
	Ratio	72.1	20.7	7.2	100	54.3	16	29.8	100
Lease of land which transferor owns	Frequency	50	16	10	76	42	22	30	94
	Ratio	65.8	21.1	13.2	100	44.7	23.4	31.9	100
Sale of agricultural assets which transferor owns	Frequency	66	17	8	91	50	13	31	94
	Ratio	72.5	18.7	8.8	100	53.2	13.8	33	100
Lease of agricultural assets which transferor own	Frequency	54	15	8	77	42	18	34	94
	Ratio	70.1	19.5	10.4	100	44.7	19.1	36.2	100
Farming techniques	Frequency	80	5	6	91	65	7	22	94
	Ratio	87.9	5.5	6.6	100	69.1	7.4	23.4	100
Know-how to manage sales, risk, and to utilize policy	Frequency	81	4	6	91	68	5	21	94
	Ratio	89	4.4	6.6	100	72.3	5.3	22.3	100
Human network like nearby farmers, distributors etc.	Frequency	74	6	9	89	65	4	25	94
	Ratio	83.1	6.7	10.1	100	69.1	4.3	26.6	100

## 2. 이양자 및 승계자 조건

영농이양자 및 승계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질문한 결과 이양자는 농업의 가치 인식과 책임감(21.2%)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음이 혈연관계(17.7%), 영농 자질과 능력(16.6%), 농촌 생활 적응능력(15.0%), 주변인과의 소통 능력(10.7%) 등의 순이다. 반면 승계자는 혈연관계(17.6%)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음이 교류 기간과 신뢰도(15.9%),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14.7%) 등의 순이다. 이양자의 경우 교류 기간과 신뢰도를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였으나, 승계자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승계 시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승계 조건 이행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이양자는 6.2%이었으나, 승계 조건의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승계자는 13.0%로 승계자가 이양자에 비해 승계 조건 관련 사항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승계자의 최소 영농경력에 대해 이양자와 승계자 모두 3년 이상이라는 응답자 비중이 이양자 73.0%, 승계자 51.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양자와 승계자 모두 일정 기간 이상의 영농경험이 안정적인 승계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영농경력이 필요하지



Table 7. Factors which affect choosing successor or transferor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unit : person, %)

Transferor			Successor		
Factors	Frequency	Ratio	Factors	Frequency	Ratio
Blood relationship	66	17.7	Blood relationship	61	17.6
Period of exchange and trust	10	2.7	Period of exchange and trust	55	15.9
Ability to understand the value of agricultur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79	21.2	Ability to understand the value of agriculture	51	14.7
Ability to adapt to rural life	56	15.0	Farming career	51	14.7
Communication skill	40	10.7	Cultivation product and area	44	12.7
Farming career	34	9.1	Communication skill and reputation	40	11.5
Farming talent and ability	62	16.6			
Ability to carry out succession conditions	23	6.2	Validity of succession conditions	45	13.0
Others	3	0.8	Others	0	0.0
Total	373	100.0	Total	347	100.0

Table 8. Perception on the minimum farming career of successor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Not necessary	10	7.3	15	15.8
Below 1 year	3	2.2	3	3.2
2 years	24	17.5	28	29.5
More than 3 years	100	73.0	49	51.6
Total	137	100.0	95	100.0

않다는 승계자가 비중(15.8%)이 동일 응답을 한 이양자 비중(7.3%)의 2배 이상이라는 결과는 영농경력 조건에 대한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농승계 상대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양자와 승계자 모두 가족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가족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 비중이 이양자(73.6%)보다 승계자(97.9%)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양자는 이웃이나 지인보다 기타 제3자를 더 선호하고, 이양자의 기타 제3자 선호 순위(3.45위)는 두 번째로 선호되는 친인척(3.34위)과 큰 차이가 없었다.

Table 9. Preferred count partner of farming succession

	Transferor (140 persons)			Successor (95 persons)		
	Avg. rank	Ratio of 1st rank		Avg. rank	Ratio of 1st rank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Family	1.65	103	73.6	1.07	93	97.9
Relatives	3.34	5	3.6	2.57	5	5.3
Neighborhoods	4.25	0	0	3.37	3	3.2
Friends	4.16	2	1.4	3.56	4	4.2
Other third parties	3.45	30	21.4	3.85	5	5.3

Note 1 : Avg. rank denotes average rank.

Note 2 : Non-response is set as fifth when calculating average rank.

적정 영농승계 시점에 대해 승계자는 이양자보다 승계 시점이 앞당겨지길 원하였다.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응답자(이양자 40.8%, 승계자 67.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양자가 65~69세가 되는 시점(이양자 21.1%, 승계자 21.1%)이라고 응답한 패턴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라고 답한 승계자 비중이 이양자 비중보다 크고, 80세 이상 또는 임종 직전이 적절하다는 이양자 비중이 각각 11.3%와 9.2%로 각각 1.1%에 불과한 승계자의 응답과 대조를 이루었다.

Table 10. Suitable succession point based on the age of transferor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As soon as possible	58	40.8	64	67.4
From 65 to 69	30	21.1	20	21.1
From 70 to 74	11	7.7	9	9.5
From 75 to 79	14	9.9	0	0.0
More than 80	16	11.3	1	1.1
On transferor's last legs	13	9.2	1	1.1
Total	142	100.0	95	100.0

영농정착을 위해 승계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이양자는 영농기술(26.6%)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나, 승계자는 토지(19.5%)라고 답하였다. 승계자의 경우 이양자보다 토지를 제외한 농업자산, 판매 및 위험관리 노하우,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관리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Table 11. Perception on the factors required for the farming settlement of successors (multiple response available)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Land	90	22.2	85	19.5
Agricultural assets excluding land	60	14.8	71	16.3
Farming technique like cultivation technology, quality management etc.	108	26.6	79	18.2
Know-hows about sale and risk management	60	14.8	72	16.6
Know-how to understand and utilize policy	38	9.4	60	13.8
Management of human network	46	11.3	67	15.4
Others	4	1.0	1	0.2
Total	406	100.0	435	100.0

### 3. 영농승계 시 요구조건에 대한 인식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게 부과되는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이양자에게 해당 조건의 중요성을 묻고, 승계자에게 조건의 타당성을 질문하였다. 질문 결과 이양자는 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4.04점)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나, 승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인턴수행(3.83점)을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인턴수행에 대해서는 이양자의 중요성 인식과 승계자의 타당성 인식 수준이 비슷하였으나(이양자 중요성 3.80점, 승계자 타당성 3.83점)하였으나, 이양자 마을 거주, 교육 이수, 이양자의 농업자산 임차 등 3가지 요구조건의 경우 이양자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 승계자의 타당성 인식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영농승계 시 요구조건에 대해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영농승계 이전 승계자가 이양자 마을에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 이양자와 승계자 모두 3년 이상(이양자 66.9%, 승계자 41.1%)을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양자 마을에 거주할 필요가 없거나 1년 이하만 거주해도 된다는 승계자 비율이 이양자 비율보다 높았다.

Table 12. Perception on the transferors' importance of succession demands and the successors' validity of succession demands

(unit : person, point)

		Transferor	Successor
Successor should live in town where transferor lives for some years.	Frequency	135	94
	Mean score	3.70	3.44
Successor should complete agricultural education by specialized agencies lik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Frequency	131	94
	Mean score	4.04	3.73
Successor should take on lease transferor's agricultural assets like land, machine etc.	Frequency	130	95
	Mean score	3.90	3.63
Successor should serve transferor's internship.	Frequency	127	94
	Mean score	3.80	3.83

Note : Strongly unimportant (invalid) = 1, Weakly unimportant (invalid) = 2, So so = 3, Weakly important (valid) = 4, Strongly important (valid) = 5

Table 13. Appropriate residence period of successor in transferor's town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Not necessary	11	7.7	10	10.5
Below 1 year	17	12.0	31	32.6
2 years	19	13.4	15	15.8
More than 3 years	95	66.9	39	41.1
Total	142	100.0	95	100.0

영농승계 이전 인턴 기간에 대해 이양자는 3년 이상(45.5%)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나, 승계자는 1년 이하(41.1%)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특히 승계자의 10.5%가 인턴 수행이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이양자의 경우 4.2%만이 인턴 수행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

Table 14. Appropriate internship length of successor at a transferor's farm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Not necessary	6	4.2	10	10.5
Below 1 year	25	17.5	39	41.1
2 years	47	32.9	30	31.6
More than 3 years	65	45.5	16	16.8
Total	143	100.0	95	100.0

인턴 승계자의 임금에 대해 이양자는 2018년 기준 최저임금(약 157만 원)보다 적은 평균 132.6만 원을 최대 지불의향 임금으로 답하였고, 전체의 74.2%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양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승계자에게 인턴으로서 최소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평균 최소요구임금이 172.2만 원으로 이양자의 평균 최대지불의향 임금보다 약 40만 원이 높았다.

Table 15. Maximum monthly wage to pay of transferor and minimum wage to accept of successor for internship

Distribution of monthly wage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Below 0.50 million won	1	0.8	0	0.0
From 0.50 million to 0.99 million won	35	27.3	4	5.5
From 1.00 million to 1.49 million won	33	25.8	8	11.0
From 1.50 million to 1.99 million won	28	21.9	32	43.8
From 2.00 million to 2.49 million won	26	20.3	21	28.8
From 2.50 million to 2.99 million won	2	1.6	8	11.0
Above 3.00 million won	3	2.3	0	0.0
Total	128	100.0	73	100.0
Mean (10,000 won per month)	132.6		172.2	
Standard deviation (10,000 won per month)	59.6		43.9	

영농승계자가 이양자의 토지를 구매할 때 구매대금 상환 기간에 대해 이양자와 승계자 모두 5년 이상(이양자 31.9%, 승계자 52.6%)이 가장 적정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양자의 26.4%가 1년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하였으나, 1년 이하가 적정하다는 승계자는 전체의 6.3%에 불과하여 상환 기간에 대한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이양자와 승계자가 토지를 매매하지 않는다(이양자 7.6%, 승계자 12.6%)고 답하였다.

승계자가 이양자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거나 부양할 경우 토지를 상속해 줄 의향에 대해 이양자의 54.9%가 상속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18.3%는 최소 소득 보장 또는 부양 조건에도 상속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이양자가 토지를 상속해 준다면 이양자의 최소 소득을 보장해 주거나 부양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승계자의 67.0%가 토지 상속을 조건으로 한 최소 소득 또는 부양 의무를 수용할 의향이 있었고, 해당 조건을 수용할 의향이 없다는 승계자는 1.1%에 불과하였다.

Table 16. Appropriate redemption period of successors for land purchase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I will not transact land.	11	7.6	12	12.6
Below 1 year	38	26.4	6	6.3
2 years	12	8.3	2	2.1
3 years	28	19.4	18	18.9
4 years	9	6.3	7	7.4
More than 5 years	46	31.9	50	52.6
Total	144	100.0	95	100.0

Table 17. Willingness to succeed or inherit land on condition of minimum income guarantee or support of transferor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I will succeed or inherit land.	78	54.9	63	67.0
I will not succeed or inherit land.	26	18.3	1	1.1
I am not sure.	38	26.8	30	31.9
Total	142	100.0	94	100.0

이양자에 대해 영농승계 이후 지속적인 교류,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 이양자에 일정 면적 임차, 이양자의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부양 등 5가지 요구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질문하였다. 질문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4.04점으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최소 소득 보장(4.00점),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3.78점), 이양자에 일정 면적 임차(3.71점), 이양자 부양(3.42점) 등의 순이다.

승계자에 대해서는 5가지 요구조건의 수용 의향을 질문한 결과 지속적인 교류 의향이 3.6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최소 소득 보장(3.36점), 이양자 부양(2.93점),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2.78점), 이양자에 일정 면적 임차(2.63점)의 순이다. 최소 소득 보장보다 이양자 경영 참여나 일정 면적 임대 의향이 낮은 이유는 이양자의 경영 간섭을 꺼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18.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and the willingness to accept of transferors' demands after farming succession

(unit : person, point)

		Transferor	Successor
Successor interacts with transferor continually.	Frequency	138	95
	Mean score	4.04	3.63
Successor allows transferor to involve in farming management of successor.	Frequency	132	95
	Mean score	3.78	2.78
Successor allows transferor to lease land of successor stably.	Frequency	131	95
	Mean score	3.71	2.63
Successor secure minimum income of transferor.	Frequency	133	95
	Mean score	4.00	3.36
Successor support transferor.	Frequency	128	95
	Mean score	3.42	2.93

Note : Strongly unimportant (will not to accept)=1, Weakly unimportant (will not to accept)=2, So so =3, Weakly important (will to accept)=4, Strongly important (will to accept)=5.

#### 4. 제3자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제3자와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양자의 선호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29점으로 승계자(3.15점)보다 소폭 높았다(Table 19). 반면 제3자 영농승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이양자 30.0%, 승계자 이

Table 19. Perception on the farming succession to a third party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Strongly negative	7	5.0	8	8.4
Weakly negative	35	25.0	17	17.9
So so	35	25.0	37	38.9
Weakly positive	36	25.7	19	20.0
Strongly positive	27	19.3	14	14.7
Total	140	100.0	95	100.0
Mean score (point)	3.29		3.15	

Note : Strongly negative = 1, Weakly negative = 2, So so = 3, Weakly positive = 4, Strongly positive = 5

양자는 제3자에 대한 영농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제3자에 영농이양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등 농업자산 상속문제에 따른 가족 불화 우려(19.5%)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Table 21). 다음은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15.9%), 승계자 자질 검증의 어려움(15.9%), 승계자에 대한 요구조건 이행 보증 어려움(13.1%) 등의 순이다.

승계자 또한 제3자 영농승계를 어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양자의 상속문제로 법적, 경제적 갈등 발생 우려(25.3%)라고 답하였다(Table 22). 다음은 승계가 충분히 이뤄질지 신뢰하기 어려워서(22.2%), 승계과정이 복잡해서(17.4%) 등의 순이다.

Table 20. Intention of farming succession to a third party

	Transferor		Successor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Yes	60	41.4	44	46.3
No	39	26.9	24	25.3
Not sure	46	31.7	27	28.4
Total	145	100.0	95	100.0

Table 21. Transferors' response on the reasons why farming to a third party is difficult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Reasons	Frequency (person)	Ratio (%)
Farming is a family business from ancestors.	34	10.4
Rural residents are reluctant to bring in outsiders.	23	7.0
Transferor is responsible for discord between successor and villagers.	37	11.3
Succession of agricultural assets to a third party could be a cause of family discord.	64	19.5
Succession process to a third party is complex.	21	6.4
If succession is not smooth, it could cause another problem.	52	15.9
It is difficult to verify successor.	52	15.9
It is not sure whether successor will carry out the terms of succession.	43	13.1
Others	2	0.6
Total	328	100.0



Table 22. Successors' response on the reasons why farming to a third party is difficult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unit : person, %)

Reasons	Frequency (person)	Ratio (%)
It is difficult to verify transferor.	44	15.3
It is difficult to receive sufficient advice.	35	12.2
In the event of conflict with the villagers, responsibility grows.	22	7.6
Inheritance of the third party transferor's assets may lead to legal and economic problems.	73	25.3
Succession process from a third party is complex.	50	17.4
I'm not sure if the succession will go smoothly and sufficiently.	64	22.2
Others	0	0.0
Total	288	100.0

### 5. 영농승계거래소에 대한 인식

본 연구는 영농승계 시 노동시장의 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가칭) 영농승계거래소’를 제안하고, 이를 통한 영농승계 의향을 조사하였다. 가상적 기구인 영농승계거래소는 이양자 및 승계자에 대한 정보를 영농승계 상대에게 제공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영농승계에 수반하는 경영협약 체결을 돕고, 체결된 경영협약을 공증해 준다. 거래소는 영농승계 시 제시된 승계 쌍방의 약속이나 계약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고, 보증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양자와 승계자에 이러한 영농승계거래소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영농승계거래소를 통한 영농승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양자의 53.6%, 승계자의 58.9%가 영농승계거래소를 승계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Table 23). 특히 영농승계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양자의 54.8%, 승계자의 50.0%,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양자의 52.8%, 승계자의 46.7%가 영농승계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영농승계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영농승계거래소를 통한 제3자 영농승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양자의 46.8%, 승계자의 54.7%가 거래소를 통해 제3자 영농승계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Table 24). 무엇보다 제3자 영농승계 의향이 없다고 한 이양자의 7.9%, 승계자의 29.2%,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양자의 45.5%, 승계자의 33.3%가 영농승계거래소를 통해 제3자 영농승계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영농승계거래소가 영농승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23. Intention of farming succession through Farming Succession Exchange (FSE)

(unit : person, %)

		Intention of succession without FSE								Total	
		Yes		No		Not sure		Non response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Trans-feror	Yes	27	51.9	17	54.8	28	52.8	2	100.0	74	53.6
	No	12	23.1	7	22.6	6	11.3	0	0.0	25	18.1
	Not sure	13	25.0	7	22.6	19	35.8	0	0.0	39	28.3
	Total	52	100.0	31	100.0	53	100.0	2	100.0	138	100.0
Succe-ssor	Yes	46	62.2	3	50.0	7	46.7	-	-	56	58.9
	No	7	9.5	0	0.0	1	6.7	-	-	8	8.4
	Not sure	21	28.4	3	50.0	7	46.7	-	-	31	32.6
	Total	74	100.0	6	100.0	15	100.0	-	-	95	100.0

Table 24. Intention of farming succession to a third party through Farming Succession Exchange (FSE)

(unit : person, %)

		Intention of succession to a third party without FSE						Total	
		Yes		No		Not sure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Trans-feror	Yes	42	73.7	3	7.9	20	45.5	65	46.8
	No	6	10.5	30	78.9	8	18.2	44	31.7
	Not sure	9	15.8	5	13.2	16	36.4	30	21.6
	Total	57	100.0	38	100.0	44	100.0	139	100.0
Succe-ssor	Yes	36	81.8	7	29.2	9	33.3	52	54.7
	No	1	2.3	9	37.5	3	11.1	13	13.7
	Not sure	7	15.9	8	33.3	15	55.6	30	31.6
	Total	44	100.0	24	100.0	27	100.0	95	100.0

## 6. 성공적인 영농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영농승계자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이양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농지임대(14.1%), 영농자금(12.8%), 농기계 임대(11.5%), 농지매입자금(10.8%) 등 생산요소 확보와

Table 25. Transferors'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policy support for the farming successor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Frequency (person)	Ratio (%)
Support for land lease	98	14.1
Farming funds	89	12.8
Support for agricultural machines	80	11.5
Land purchase financing	75	10.8
Support for the securing the market	70	10.0
Manpower support	53	7.6
Agricultural consulting	51	7.3
Support of house	45	6.5
Support for the networking	43	6.2
Living expense support	34	4.9
Credit guarantee	31	4.4
Support for incorporation	25	3.6
Others	3	0.4
Total	697	100.0

관련된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농작물 생산 및 판매와 관련성이 낮은 생활비(4.9%), 신용보증(4.4%), 법인화(3.6%) 등은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정책지원 수혜자가 되는 영농승계자에게 영농승계 단계의 지원과 승계 이후 영농정착 단계의 지원을 구분하여 개별 정책지원의 기여도를 질문하였다. 영농승계 단계에서는 생활비 등 정착자금 지원의 기여도가 5점 만점에 4.11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이 농지나 주택 등을 승계할 경우의 세금 감면(4.06점), 농기계 임차지원(4.00점), 농지임차 지원(3.95점), 인턴 영농승계자 임금 지원(3.95점), 주택지원(3.84점) 등의 순이다. 제시된 정책지원의 영농승계에 대한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가운데 정착자금이나 세금 감면 등 농작물 생산 및 판매와 관련성이 낮은 지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영농정착 단계의 지원정책의 기여도 또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가운데 영농자금 지원(4.09점)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이 회계나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3.94점), 이양자 토지 매입자금 지원(3.93점), 토지를 제외한 이양자의 농업자산 매입자금 지원(3.91점),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원(3.91점), 법인화 지원(3.91점), 신용보증(3.87점) 등의 순

Table 26. Successors' perception on the contribution of policy support for the farming SUCCESSOR

		Mean score (point)
Farming succession stage	Settlement funds like living expense support	4.11
	Tax cut on succession of tangible assets like land, house, etc.	4.06
	Support for agricultural machines	4.00
	Support for land lease	3.95
	Internship wage support	3.95
	Support of house	3.84
Farming settlement stage	Farming funds	4.09
	Support of service like finance, consulting, etc.	3.94
	Transferor's land purchase financing	3.93
	Transferor's agricultural assets (excluding land) purchase financing	3.91
	Support for the regional networking	3.91
	Support for incorporation	3.91
	Credit guarantee	3.87

Note : Strongly noncontributory = 1, Weakly noncontributory = 2, So so = 3, Weakly contributory = 4, Strongly contributory = 5

이다. 영농정착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형성이나 법인화, 신용보증 등 농작물 생산 및 판매와 관련성이 낮은 지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잠재적 영농이양자인 농가와 잠재적 승계자인 농업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승계 의향과 범위, 이양자와 승계자의 조건과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 영농승계에 따른 요구조건에 대한 인식, 제3자 영농승계 및 제약요인, 그리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승계 의향 조사결과 이양자의 이양의향은 승계자의 승계의향의 절반에 그쳤다. 이양의향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로 마땅한 승계자가 없음, 농업을 통한 수익보장이 어려움, 내 삶의 일부로서 삶의 양식임, 다른 직업에 비해 고됨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수익보장이나 철학과 관련된 삶의 양식 문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나, 승계자 부재나 노동 강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영농승계 활성화 측면에서 이양자와 승계자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계화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농승계 시 승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최소 영농경력, 이양 시점, 이양자 마을 거주 기간, 인턴 기간 및 급여 수준 등)에 대한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승계자가 더 긴 기간 동안 이양자 마을에 체류하고, 낮은 임금에서 장기간 인턴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기를 기대하며, 토지매매 시 상황도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양자가 적지 않았다. 반면 승계자 중에는 이양자 마을에 거주할 필요가 없거나 1년 이하만 거주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43.1%에 달했고, 절반 이상의 승계자가 인턴 수행이 필요없거나 수행하더라도 1년 이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양자의 토지 구매대금 상환 기간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5년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이양자와 승계자의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교류 확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영농승계 이후의 요구조건(지속적 교류,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 및 토지 임대, 이양자 부양)에 대해 이양자의 중요도 인식 점수보다 승계자의 타당성 인식 점수가 낮았다. 이는 영농승계에 따른 요구조건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승계자가 최소 소득 보장이나 이양자 부양보다 경영 간섭의 여지가 있는 이양자에 대한 토지 임대나 경영 참여 보장 요구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결과는 영농승계 이후 승계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양자와 승계자 모두 영농승계 상대방 선택 시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영농승계 상대로 직계 가족을 월등히 선호한다는 결과는 제3자 영농승계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3자 영농승계 의향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3자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이양자와 승계자 비율이 낮지 않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이양자와 승계자가 제3자 영농승계를 꺼리는 공통적인 이유는 이양자의 농업자산 상속문제에 따른 법적, 경제적 갈등 발생 우려나 승계 상대방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제3자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갈등을 중재하고, 승계 쌍방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공적 장치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농승계거래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창업농 육성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영농기반이 부재한 귀농 의향이 있는 신규인력에 불리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양자와 승계자가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정책평가와 대안 마련이 미흡하다. 영농승계 및 청년 창업농 육성정책의 운영현황 분석과 적절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는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기구로 영농승계거래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 주체, 운영방식, 기구의 역할과 기능, 필요예산과 인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농가와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전국 단위의 농가 및 타 농업계 교육기관 수강생(재학생, 졸업생), 귀농인이나 귀농 의향이 있는 도시민으로 확대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Submitted, May. 2, 2019 ; Revised, May. 21, 2019 ; Accepted, May. 22, 2019]

## References

1. Choi, H. H., J. S. Shin, S. D. Lee, J. K. Park, and D. W. Choen. 2017. A Study on Condition and Intentions of Livestock Farming Succession.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4(2): 257-277.
2. Kang, H. J. 2008. Characteristics of the Farms that Farming Successor Exis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5(4): 829-848.
3. Kim, J. H. and S. J. Ma. 2006. An Analysis of the Successful Farm Readiness and Settling of New Farmer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9(1): 65-89.
4. Lee, S. H. and J. H. Kim. 1995. A Study on the Inheritance and Management Succession of Farms. R328.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5. Ryu, J. Y. and B. I. Ahn. 2017. Analyses of the Effects of Government's Direct Payment on the Aged Farmers' Retirement from Rice Farming.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4(3): 519-538.
6. Yoon, S. D. and G. M. Gim. 2008. A Study on the Retirement Plan and Farming Transfer among Elderly Farmers in Ko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8(2): 179-206.